

# 『三國遺事』에 관한 정치학적 一讀

안 외 순

(한서대학교 교수)

I. 서론

II. 『삼국유사』에 관한 기존인식들

III. 일연의 생애와 정치사적 배경

IV. 『삼국유사』와 정치학적 사유: 시

론적 독해

V. 결론

## &lt;국문 요약&gt;

이 논문은 『삼국유사』에 대한 정치학적 일독(一讀)을 행하되 특히 그것이 추구한 당대의 정치적 과제, 곧 대내적 왕정회복 및 대외적 주권회복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2장에서는 『삼국유사』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진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그것은 안정복과 최남선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를 살펴보고, 정치학적 평가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3장에서는 『삼국유사』의 저술 배경이 되는 저자 일연(一然)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국존(國尊)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과 그 시대의 정치사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그것은 특히 국내적으로는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종식과 왕정의 회복, 밖으로는 몽골과의 전쟁의 종결과 강화(講和), 그리고 원(元)의 내정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상기한 정치적 과제와 관련, 『삼국유사』는 단군조선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삼국 수립 및 통일 과정에 대한 기술을 통해 고려 국가와 민족의 정치공동체의 시원과 국가형성 및 민족형성 과정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그 저술의 궁극적 목적은 한민족의 국가/민족 형성의 시원과 그것의 삼국시대를 거치는 역사적 전통(傳統) 과정을 재확인함으로써 고려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문명공동체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불교적 언술과 염원의 방식을 취하며 숭한 신화나 설화적 소재를 동원하더라도, 그 전달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충효 관념에 입각한 국가위기 극복 방식과 효성의 실천 그리고 탁월한 신성 내지 카리스마의 발휘 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주제어: 정치학적 독해, 삼국유사, 일연, 고려, 정체성, 왕정회복, 주권회복.

## I. 서론

고려 후기 일연(一然, 1206-1289)이 남긴 저서로는 『삼국유사(三國遺事)』<sup>1)</sup> 5권 이외에도 『어록(語錄)』 2권 · 『계송잡저(偈頌雜著)』 ·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2권 · 『조파도(祖派圖)』 2권 · 『대장수지록(大藏須知錄)』 3권 · 『제승법수(諸乘法數)』 7권 · 『조정사원(祖庭事苑)』 30권 · 『선문염송사원(禪門拈頌事苑)』 30권 등이 더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를 제외한 나머지 저술들은, 이규경의 분류에서 보듯이, 전문적인 불교서적으로서 정치학적 사유와 연계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간접적인<sup>2)</sup> 반면 『삼국유사』는 저술의도에서부터 저술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sup>3)</sup> 따라서 이 글은 『삼국유사』에 관한 정치학적 일독(一讀)을 시도하고자 한다. 하지만 『삼국유사』를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고 치밀한 분석을 요하는 작업이다. 때문에 이 글은 그러한 작업에 적으나마 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해를 시도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삼국유사』에 대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진 공부정적 평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삼국유사』의 저술 배경이 되는 저자 일연이 당대 최고의 지성의 지위에 그리고 국존(國尊)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과 그 시대

- 
- 1) 원래 『三國遺事』 표지에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卷5의 머리에 ‘國尊 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沖照大禪師一然撰’이라고 되어 있어 일연이 저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 2)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三, 釋奠類, 釋典總說, 釋教 · 梵書 · 佛經 辨證說 附 釋氏雜事 조 참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들 저서들에서 정치적 사유를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불교이론사서(佛敎理論史書)에 속하는 그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역시 그의 왕정회복 의지로 이해되는 것을 들 수 있다.
  - 3) 『삼국유사』의 이러한 정치학적 중요성 주목에 하여 먼저 특정 기사를 한국 정치사상사적 맥락에서 해석한 예시를 제시한 시도로는 김석근(1997) 참조.

의 정치사적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상기한 정치적 과제와 관련, 『삼국유사』 저술의 궁극적 목적은 한민족의 국가/민족 형성의 시원과 그것의 삼국시대를 거치는 역사적 전통(傳統) 과정을 재확인함으로써 고려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문명공동체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음을 밝힐 것이다.

## II. 『삼국유사』에 관한 기존 인식들

『삼국유사』에 관해 『삼국사기』와 더불어 흔히들 ‘현존 하는 최고의 한국 고대 사적(史籍)의 쌍벽(雙璧)’이라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별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평가가 일관되어 행해졌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부정적 평가 역시 만만치 않았고 그 역사도 오래되었다.

최초의 예는 조선시대 18세기 이른바 ‘실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삼국유사』를 ‘허황하여 믿기 어려운 책’으로, 단순한 불교사서, 설화집성집, 불교신앙을 포함하는 역사에 관한 문헌, 잡록적 사서, 야사 등으로 취급해도 무리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고려의 승 무극(無極)<sup>4)</sup> 일연(一然)이 『삼국유사(三國遺事)』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전적으로 승려들의 사적(事迹)을 다룬 것이지만 왕력편(王曆篇)에는 국사(國事)에 대한 것도 말한 것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허황된 이야기들이다. 그런데도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은 여기에서 많이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볼 만한 것이 못 된다.<sup>5)</sup>

- 
- 4) 사실 무극은 일연의 제자이나, 당시는 무극이 일연으로 간주 내지 오해되었던 것 같다.
- 5) 順菴先生文集卷之十三, 雜著, 橡軒隨筆[下] 戶牖雜錄並附, 東國歷史 “麗僧無極一然 撰三國遺事 此專爲諸僧事迹 而王曆篇亦有國事之可言者 盖多荒誕 而通鑑及輿地勝覽多取之實不足觀也”. 이 예외도 순암은 여러 곳에서 같은 평가를 일관되어 행하고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고려 중엽에 중 무극 일연(無極一然: 무극은 호(號) 일연은 자(字))의 찬인데, 모두 5권이다. 이 책은 본디 불교의 원류를 전하기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더러 연대는 상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후배 실학자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sup>6)</sup>나 이규경(李圭景, 1788-1856)<sup>7)</sup> 등에게서도 공통된다.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유교적 합리주의와 실학의 실증주의적 역사학 방법론에 입각한 그의 학문관에 비롯한 것이라고 보인다.

해방 이후에도 일부에서 『삼국유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삼국유사』는 불교 중심 또는 신라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북방계통의 기사가 소홀하고, 그릇된 전거에 입각한 기술 등 인용전거가 불분명하며,<sup>8)</sup> 야사(野史)로서 체재(體裁)나 문사(文辭)가 세련되지 못하며,<sup>9)</sup> 북고적 역사관도 보이고,<sup>10)</sup> 심지어 일연이 보수적 최씨의 지원을 받았으며 『삼국유사』 역시 그 연장선상에 선 보수적 작업이라는 비판<sup>11)</sup> 등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물론 『삼국유사』에 대해 이러한 부정적 평가와 전혀 상반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 부여 역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고조선과 단군신화 및 각국의 건국설화 등을 수록한 한국 민족주의 서적의 전형이라는 평가,<sup>12)</sup> 최고의 한국설화문학서로서 특히 향찰(鄕札)로 표기된

고할 수 있으나 전혀 이단(異端)의 허탄한 설이었는데, 뒤에 와서 본조에서 『동국통감』을 찬할 때에 많이 따다가 기록하였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지명도 이것을 많이 따랐다. 아! 이 책은 이단의 괴탄한 설인데도 후세에 전해졌는데, 당시에는 어찌 사필을 잡고 기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 전하지 않아서 없어졌으랴! 대개 이 책은 중들을 위해 전한 것이므로 바위 구멍 속에 간직하여 병화(兵火)에도 보전할 수 있었던 것”(東史綱目, 凡例, 採據書籍, 東國書籍)

“김씨(金氏) 일연(一然)의 속명이 김견명(金見明)이다”는 또 고기(古記)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그 역시 허황한 말이다.”(東史綱目, 附錄 上卷 上, 甄萱, 別傳)

6) 靑莊館全書, 卷之五十四, 叢葉記一, 東國史, 『三國遺事』 부분 참조.

7) 『三國遺事』五卷曰『紀異』二卷曰『興法』曰『義解』曰『神呪』曰『感通』竝三卷. 第五卷之首曰國尊曹奚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沖照大禪師一然撰 其說荒誕”(五洲衍文長箋散稿, 經史篇 / 史籍類, 史籍總說, 東國諸家史類)

8) 이기백(1973); 김철준(1973) 등

9) 동북아세아연구회 편(1982).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

11) 채상식(1979)와 (1984).

『혜성가(彗星歌)』 등 14수의 신라 향가(鄉歌)의 수록에서 보듯이 한국 고대 문학사의 최고 실증적 보고(寶庫)라는 찬사,<sup>13)</sup> 상호 상이한 체제의 <왕력> · <기이> · <효선> 편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사기』나 『해동고승전』은 물론 중국의 고승전이나 사저와 비교해도 체제 면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기도 하였다.<sup>14)</sup> 그 결과 근대 한국학의 선구자 최남선(崔南善, 1890-1957)은 일찍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할 것”이라고도 한 적도 있다.<sup>15)</sup>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입장의 경우 『삼국유사』에 대해 대개 다음의 견해를 전제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즉 『삼국유사』는 그 내용상 불교와 관련된 것을 많이 다루기는 하지만 주제 자체가 반드시 불교적인 것만은 아니며, 많은 설화를 수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설화집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삼국유사』는 서명(書名)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전 사가(史家)의 기록<sup>16)</sup>에서 빠졌거나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기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정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만록(漫錄) 정도로 『삼국유사』를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신이(神異)한 전적(典籍)들이 역사적 범주에 기술한 거 자체가 일연의 의도된 역사 인식의 소산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러한 신이한 이적들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수많은 사료와 합리적 증거를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하였기 때문이다. 『삼국유사』는 처음부터 삼국의 역사 전반에 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불교 자체도 삼국의 불교사 전반을 포괄하려는 의도가 없이 저자의 관심을 끈 자료들을 선택적으로 수집, 분류한 자유로운 형식의 역사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17)</sup>

이 글 역시 기본적으로 후자의 인식과 동일 선상에 있다. 덧붙여서 『삼

12) 이재호(1983) 등.

13) 조동일(1990) 등.

14) 김태영(1974); 김두진(2000).

15) 최남선(1946/1971) <해제>.

16) 이는 물론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의미한다.

17) 김태영(1974); 조동일(1982); 권희경(2000), 박진태 외(2002).

『삼국유사』에 대해 부정적 평가자를 내리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자신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주요한 전거로 인용하는 서적은 여전히 『삼국유사』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당시까지의 역사를 불교 중심으로 인식했다는 점 역시 고려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불교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그것은 『삼국유사』의 한계가 아니라 적어도 삼국시대나 고려문화의 일반적 의식을 반영해주는 현실성의 체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불교를 국가적으로 공인했던 고려사회에서, 그리하여 승려가 국사(國師)나 왕사(王師)를 담당, 국가의 종교적/정신적 지도자이자 스승이었던 사회에서, 일연 자신이 국사에 해당하는 국존(國尊)에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그리고 바로 그 와중에 그 자신은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는 사실은, 그리고 그 내용의 대부분이 국가의 안녕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 등은 정치학적 측면에서도 『삼국유사』를 반드시 분석해야하는 명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Ⅲ. 일연의 생애와 정치사적 배경

『삼국유사』의 편찬 작업은 일연 개인의 작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살았던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 혹은 업적의 탄생과정들이 그러하듯이 일연이 살았던 시대 역시 국내외적 국난이 산적했던 시기였다. 안으로는 무인의 장기집권, 빈번한 민란, 왕정회복을 요구하는 이들과의 정쟁, 왕정회복에 뒤따른 원(元)의 내정간섭 등이 있었고, 밖으로는 기나긴 몽골과의 전쟁, 몽골의 일본 전쟁에의 동원, 천도(遷都)와 환도(還都)에 국정혼란 및 국가재정 피폐, 강화(講和)를 둘러싼 항쟁파와 강화파의 대립, 원의 내정간섭 및 공출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일연은 서서히 불교계의 지도자로 떠올랐고, 대몽항쟁의 상징인 대장경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마침내 고려의 종교세계와 정신세계의 지존(至尊)인 국존(國尊)의 자리에까지 오르

게 되었던 것이다. 후일 한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의 하나인 『삼국유사』의 편찬 작업은 바로 이 와중에 행해졌던 것이다.

## 1. 일연의 생애

일연의 생애에 관한 기록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가 생의 마지막 시기에 머물렀던 경상북도 구위군의 인각사(麟角寺)에 있는 비문(碑文)이 유일하다. 일연을 국존(國尊)에 임명했던 당사자인 충렬왕은 일연 사후 6년째 되던 해(1295, 충렬왕 21) 그를 추모하여 당대 최고학자 민지(閔漬, 1248-1326)<sup>18)</sup>로 하여금 그의 비문을 짓게 하였던 것이다. 이 비문 양기(陽記)에는 출생부터 입적까지의 생애가 집약되어 소개되어 있고 음기(陰記)에는 그의 문도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sup>19)</sup> 지금까지 일연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이 비문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sup>20)</sup>

이름은 견명(見明), 자호를 목암(睦庵), 자는 회연(晦然)이었는데 후일 일연(一然)으로 개칭한<sup>21)</sup> 그는 1206(熙宗 2)년에 당시 경주의 속현(屬縣)이었던 장산(章山: 지금의 경산)에서 김언필(金彦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출신가문이 크게 명망가 집안은 아니었던 듯하다. 어쨌든 그의 출

18) 시호를 문인(文仁)으로 받을 만큼 당대 최고 문장가였다. 하여 관직 역시 전 중시사(殿中侍史)를 거쳐 예빈윤(禮賓尹)을 역임한데서 보듯이 최고 문장가들이 주로 담당하는 외교업무와 문장업무를 많이 관장하였다. 1285년(충렬왕 11) 원(元)이 일본을 재원정하려 하면서 고려에 전함(戰艦) 건조를 요청하였는데 좌부승선(左副承宣)의 신분으로 원에 가서 일본 정벌의 무용함을 건의해 중지시킨 일로 유명하다. 민지에 대해서는 이익주(2003a) 참조.

19) <普覺國尊碑銘古搨本> (奎章閣本·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 『朝鮮金石總覽』上 참조. 한편 비의 뒷면에서는 山立이 지었다는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일연의 행적과 문도들의 이름이 품계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 陰記가 있다.

20) 일연의 생애와 관련된 기존연구로는 특히 채상식(1979; 1984; 2006), 민영규(1983), 김두진(2002) 참조.

21)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서는 ‘견명(見明)’으로 기록되어 있다. “왕이 공주와 함께 광명사(廣明寺)에 거동하여 중 견명(見明)을 방문했다.(王與公主, 幸廣明寺, 訪僧見明)”(高麗史節要, 二十卷, 忠烈王 二, 壬午 八年(1282),

생 시기는 한창 무신집권의 와중으로서 고려 왕실의 권위가 크게 허물어졌던 시기였다.

일연은 일찍부터 불교에 뜻을 두었던 듯하다. 9세(1214: 고종1)가 되면 이미 해양(海陽)의 무량사(無量寺)에서 불교에 입문하기 때문이다. 불교도로서의 진전이 빨라 14세(1219, 고종 6년)에는 설악산 진전사(陳田寺)로 가서 당시 고승인 대웅장로(大雄長老)의 제자가 되었다. 일연은 이곳에서 대웅장로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뒤 여러 곳의 선문(禪門)을 방문하면서 6년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아 구산문사선(九山門四選)으로 추대되었다. 22세(1227, 고종 14년)에는 승려들을 위한 과거시험인 선불장(選佛場) 상상과(上上科)에 응시, 장원 합격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일연은 탈정치적 수도자로의 길보다는 처음부터 정치공동체에 관심을 가진 불도자내지 학승쪽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 일연은 포산(包山: 현풍 비슬산) 보당암(寶幢庵)에 머물면서 ‘심존선관(心存禪觀)’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31세(1236, 고종18) 때는 병화(兵禍)를 피해 무주암(無主庵)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사실 이때는 이미 1231년 시작된 고려-몽골간 전쟁이 어느덧 5년째가 되던 해였고, 수도까지 이미 강화도로 천도한 이후였다. 그리고 그는 이 시기 국가로부터 삼중대사(三重大師)의 승계(僧階)를 받았다. 당시 그는 늘 “생계(生界)는 줄지 아니하고 불계(佛界)는 늘어나지 아니한다(生界不減 佛界不增)”를 참구하였다. 즉 생/불의 세계가 별개가 아님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 불혹을 넘긴 41세(1246, 고종32) 때 일연은 불교계의 어른인 선사(禪師)에 제수되었다. 어쨌든 이 시기 그는 여러 사찰들을 전전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최충헌을 계승한 최우가 정권을 장악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대몽항전기였으며 또 불교사적으로는 무신란 이후 계속되던 불교계의 대무인항쟁도 일단 무마되면서 수선사 위주의 교단체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1232년 강화도 천도 이후에는 수선사 계통과 화엄종의 균여파와의 합작으로 대장경을 조판하기도 한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

의 하나는 친신라적인 문벌세력에 대신하는 사인군(士人羣)이 등장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표방함으로써 신라계승의식은 축소되고 이에 따라 경주를 중심한 경상도 지역에서 신라부흥을 내세운 여러 차례의 민란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sup>22)</sup>

일연은 44세(1249, 고종35)를 기점으로 보다 분명하게 정치적 노선을 택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대내적으로는 왕정회복을, 대외적으로는 대몽항전을 택한 것 같다. 왜냐하면 1249년에 그는 정안(鄭晏)의 청으로 남해의 정림사(定林社)에 주재하면서 그의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대장경 작업을 약 3년 동안 종사하였기 때문이다.<sup>23)</sup> 어찌 되었든 이 경험은 일연이 고려의 대내외적 정치상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나아가 이후 일연의 행보는 왕정회복 노선으로 돌아섰던 것이 아닌가 한다. 51세(1256년, 고종42) 여름, 일연은 길상암(吉祥庵)에 머무르면서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2권을 편찬하였다. 원본인 『조동오위(曹洞五位)』는 중국 조동종의 기본서로서, 정치체제 혹은 정치질서의 회복을 옹호하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조동오위』를 중편하였고, 특히 정치적 문제로 해석되어 온 정위(正位)의 위상을 가리는 정중편(正中偏)에 대해 일연은 정위는 체(體)이고 편위는 용(用)으로, 정위에서 정체지(正體智)를 체득하고 편위에서 후득지(後得智)를 체득하는 우리는 정위와 편위가 일치하는 예라고 밝혔던 것이다.<sup>24)</sup> 이렇게 정치적 해석이 강한 『중편조동오위』를 저술하였다는 것은 무신들에게 넘어간 왕권을 바로잡아 회복하고, 이를 기반

22) 채상식(1984), 136.

23) 채상식(1984), 136. 그러나 채상식은 정안과 일연이 연계된 점을 근거로 일연에 대해 최씨 무신정권과 연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정안이 이때부터는 최씨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재를 털어 정림사(定林寺)를 세우고 국가와 반씩 경비를 대어 8만대장경의 일부를 간행하고 1251년(고종 38) 최우의 아들 최항(崔沆)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결국 반란을 피하였다는 죄목으로 살해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4) 한중만(1997) 71-73 참조.

으로 몽고의 간섭도 벗어나기를 기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25)</sup>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일연은 53세가 되던 해(1259, 고종45) 대선사(大禪師)의 승계를 제수받았다.

이후 일연의 행보는 형식적으로나마 왕권을 회복한 고려 왕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불교계의 어른으로 부각되었다. 55세(1261, 원종2) 국왕의 부름을 받고 임시수도였던 강도(江都: 강화도) 선월사(禪月社)에 머무르면서 설법하였다. 이곳에서 일연은 스스로 지눌(知訥)의 법을 계승하였다고 하였다. 58세 되던 해(1264, 원종5)년 가을 국왕에게 여러 차례 청한 끝에 경상북도 영일군 운계산(雲梯山)에 있던 오어사(吾魚社)로 옮겼다가 비슬산 인홍사(仁弘社)의 만회(萬回)로부터 주석자리를 양보받고 주지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62세(1268, 원종9) 때는 조정에서 선종과 교종의 고승 100명을 개경 해운사(海雲寺)에 초청하여 대장낙성회향법회(大藏落成廻向法會)를 베풀었는데, 일연이 이 법회를 주관하였다. 68세(1274년, 원종10) 국왕이 일연이 머물던 인홍사를 중수하고 경내를 확장하도록 하고 ‘인흥(仁興)’이라는 사액을 하사하였다.

71세에서 84세 입적할 때까지는 한편으로는 민족사에 길이 남는 『삼국유사』 집필 작업에 헌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종에 이어 계속되는 충렬왕의 보호 속에 마침내 고려 최고의 승직인 국존(國尊)의 지위에 올랐던 시기이다. 71세(1277, 충렬왕3)부터 1281년까지는 충렬왕의 명에 의해 청도 운문사(雲門寺)에서 주석하면서 선풍(禪風)을 일으키는 한편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78세(1281, 충렬왕7) 6월에는 동정군(東征軍)의 격려차 경주에 행차한 충렬왕의 부름을 받고 행재소로 갔다. 이때 일연은 뇌물로써 승직(僧職)을 구하는 불교계의 타락상과 몽고의 병화로 불타버린 황룡사의 황량한 모습을 목격하였다.

79세(1282, 충렬왕8) 가을 환도한 개경의 대전(大殿)에 왕명을 받고 들어가 선(禪)을 설하였다. 개경의 광명사(廣明寺)에 머무르면서 왕실 상하의 극진한 귀의를 받았다. 80세(1283년, 충렬왕9) 3월 마침내 국존(國尊)

25) 채상식(2006), 18쪽.

에 책봉되었고, 원경충조(圓經冲照)의 시호를 받았다. 4월에는 대내(大內)에서 문무백관을 거느린 왕의 구의례(摠衣禮)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노모의 봉양을 이유로 왕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 이듬해인 81세(1284, 충렬왕 10년) 모친은 96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일연에게 군위 화산의 인각사(麟角寺)를 수리하고 토지 100여경(頃)을 주어 주재하게 하였다. 이후 일연은 인각사에서 당시의 선문(禪門) 전체를 상대로 하는 구산문도회(九山門都會)를 두 차례나 개최하였다. 이러한 영광들을 뒤로 하고 마침내 84세(1289, 충렬왕15) 되던 해 6월 일연은 숙환에 들었고, 7월 7일 국왕에게 올리는 글을 쓰고 다음 날인 8일 입적하였다. 그는 그날 새벽 선상(禪床)에 앉아 제자들과 선문답(禪問答)을 나눈 뒤 거처하던 방으로 돌아가서 손으로 금강인(金剛印)을 맺고 입적을 하였다고 한다. 그해 10월 국가에서는 인각사 동쪽 언덕에 탑을 세웠고, 보각(普覺)이라는 시호와 정조(靜照)라는 탑호를 내렸다.

## 2. 정치사적 배경

위에서 살펴본 일연의 생애는 정치사적으로는 크게 무신집권기, 대몽항전기, 몽골의 정치적 간섭이 시작, 심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장기적인 무신집권으로 고려 왕권이 유명무실한 즈음 이어진 30여 년 간의 고려와 몽골의 전쟁(1231-1259)으로 고려왕실은 물론 국가 전체가 유린되고 백성들의 삶도 피폐되었다. 고려와 몽골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정치세력들 간에는 민생을 위해서라도 초기의 단합된 항전론이 약화되면서 몽골과 강화(講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그러나 최씨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항전을 고집하였고, 결국 항전론과 강화론의 대립은 최씨정권의 존속이나 왕정복고나 하는 문제로 변모하였다.

당시 강화를 주장한 사람들은 좌주(座主)-문생(門生) 관계를 통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던 문신관료들이었고, 이들은 최씨정권을 무너뜨리고 몽골과 강화를 성사시켰다. 앞에서 보았듯이 후일 국왕으로서 일연을 적

극 후원, 불교계의 어른으로 발탁하였던 원종(元宗)이 태자 왕전의 자격으로 몽골에 파견되어(1259, 고종46)에 몽골의 한지파(漢地派)를 대표하는 쿠빌라이를 만났을 때 쿠빌라이는 “고려는 만리지국(萬里之國)으로서 당(唐) 태종의 친정(親征)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태자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고려에 대해 토풍(土風)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불개토풍(不改土風)’을 약속하였다.<sup>26)</sup> 이 ‘불개토풍’은 이후 고려-원 양국 간의 외교에서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몽고풍의 변개(變改)가 강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고려왕조의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당시 몽골의 한지파는 한(漢)의 제도를 적극 수용하면서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중국 왕조들의 취해 왔던 전통적인 조공·책봉관계(朝貢冊封關係), 즉 사대관계(事大關係)를 맺고자 하였는데, 이때 고려는 한지파의 새로운 외교정책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한편, 고려 쪽에서 본다면 오랜 전쟁 끝에 성립된 몽골과의 관계가 적어도 형식에 있어서는 사대(事大) 관계라는 사실은 나름 성과였다.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납질(納質)·조군(助軍)·수량(輸糧)·설역(設驛)·공호수적(供戶數籍) 등 ‘6사(六事)’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으나, 1274년 왕실 혼인이 이루어지고 1278년(충렬왕 4)에는 고려에서 원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6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는 호구조사를 면제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고려-원 관계가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려는 오랜 전쟁 끝에 강화를 체결하면서 몽골의 영토에 편입될 위기에서 벗어나 왕조를 유지

26) 이때의 약속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한다. ① 衣冠은 本國의 風俗에 좇아 상하 모두가 改易치 아니해도 좋다. ② 行人은 蒙古朝廷에서 파견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禁絶시킨다. ③ 古京(開京)에의 還都는 사세에 따라서 遲速이 있어도 좋다. ④ 압록강의 屯戍에 대한 철수는 가을을 기하여 행할 것이다. ⑤ 전에 설치한 達魯花赤 일행은 모두 西還케 한다. ⑥ 蒙古에 자원하여 머무른 자 10余輩 高麗 사신도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지 모르므로 그 일은 철저하게 조사해 볼 것이다. 박용운(1987), 503.

한 채 몽골과 사대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였다. 동시에 100년 동안이나 유지되었던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왕정을 회복하였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강화파 문신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이들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왕조의 중흥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과제는 대원관계에서 왕조의 존립을 유지하면서 원의 간섭을 줄여 나가는 것이었다.<sup>27)</sup> 그 가운데 왕조를 유지하려는 여러 노력 가운데 고려가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천하로서 역사의 출발부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 민간에 전승되던 단군신화가 일연에 의해서 『삼국유사』의 첫머리를 장식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8)</sup>

#### IV. 『三國遺事』와 정치학적 사유 : 시론적 독해

##### 1. 『삼국유사』의 제명과 체재적 구성에 나타난 정치학적 성격

『三國遺事』와 정치학적 사유: 시론적 독해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점의 하나는 『삼국유사』의 서명에 대해 어디까지나 『삼국사기』와의 관계를 분리시켜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바로 이 점이야말로 『삼국유사』 후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사서 혹은 정치사상사서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유사(遺事)’라는 서명은 분명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점 혹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건들[遺事]’을 모은 역사서라는 점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의 경우 누구도 그것의 정치사서(政治史書)로서의 위상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27) 이 부분은 이익주(2003b), 55-57쪽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였다.

28) 이익주에 의하면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당시 단군신화는 “널리 회자되고 있었고, 이 두 사람(『제왕운기』의 이승휴와 일연)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단군신화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익주(2003b), 47-48 참조.

그리고 이때 『삼국유사』 역시 ‘일견 정치적으로 안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정치사적인 사건들을 수록해놓은 책’이기에 정치사서 혹은 정치사상사 서적으로 읽힐 수 있어야 한다. 소재와 표현방식은 물론 불교적이거나 민속적이거나 언어학적일 수 있지만 말이다.

둘째는 체재와 분량 면에서도 『삼국유사』의 정치학적 성격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삼국유사』는 권1에 <왕력(王曆)> 제1과 <기이(紀異)> 제1, 권2에 <기이> 제2, 권3에 <흥법(興法)>과 <탑상(塔象)>, 권4에 <의해(義解)>, 권5에 <신주(神呪)>와 <감통(感通)>, <피은(避隱)>, <효선(孝善)>을 각각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총 5권 중에 총 2권이 직접적인 정치사 관련 기술이라는 점이다. 즉 권1의 <왕력>은 저자의 의견도 간간이 더한 연표(年表)로서 중국의 연대와 함께 신라·고구려·백제 및 가락(駕洛)의 순으로 배열하고 뒤에는 후삼국(後三國), 즉 신라·후고구려·후백제의 연대, 역대 왕의 출생·즉위·치세(治世)를 비롯하여 기타 주요한 역사적 사실 등을 간단히 기록한 것이다. <기이>편 제1은 고조선 이하 삼한(三韓)·부여(扶餘)·고구려와 통일이전의 신라 등 여러 고대 국가의 흥망 및 신화·전설·신앙 등에 관한 유사(遺事) 36편을 기록한 것이다. <기이>편 제2는 통일신라시대 문무왕(文武王) 이후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敬順王)까지의 신라 왕조 기사와 백제·후백제 및 가락국에 관한 약간의 유사 등을 다룬 2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직접적인 정치사를 다룬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이런 체재적 구성만이 아니라 분량 차원의 경우 이 직접적 정치사를 다루는 1권, 2권이 사실상 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삼국유사』의 정치사서로서의 성격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뿐만 아니라 일견 불교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정치와 무관할 것 같은 나머지 세 권의 내용 역시 사실상 정치사서로서의 개연성이 농후하다. 일단 표면적으로만 보면 권3의 <흥법>편은 신라를 중심으로 한 불교 전래의 유래와 고승(高僧)들에 관한 행적을 7편의 글에 나누어

기술하고 있고, <탐상>편에서는 사기(寺記)와 탐과 불상 등에 얽힌 승전(僧傳) 및 사탑(寺塔)의 유래에 관한 기록을 30편에 나누어 각각 신고 있다. 또 권4의 <의해>편 역시 신라 때 고승들의 행적으로 14편의 설화, 권5의 <신주>편 또한 밀교(密敎)의 이적(異蹟)과 이승(異僧)들의 전기 3편을, <감통>편에는 부처와의 영적 감응(感應)을 이룬 일반 신도들의 영험(靈驗)하거나 영이(靈異)한 사건 등을 다룬 10편의 설화를, <괴은>은 은둔(隱遁)한 일승(逸僧)들의 이적(異蹟)들에 대해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효선>편 역시 뛰어난 효행 및 선행에 대한 미담(美談)을 5편에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의 내용을 보면 이들 일화들 역시, 그 소재가 무엇이건 간에, 대부분 충효적 가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삼국유사』에 일관된 주제의식인 충효적 성격이 너무 강해 심지어는 고려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불교적 사례와 용어를 빌려 설명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을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충(忠)과 애국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일례로는 널리 알려진 김유신, 김춘추가 통일대업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관련 기이한 영웅담<sup>29)</sup>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장춘랑과 과랑이 백제의 군사와 황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후 태종의 꿈에 나타나는 내용<sup>30)</sup>, 당나라 장수 이적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습격하려 하자 명랑법사에게 청하여 당나라 군사를 격퇴한 사실 및 만파식적을 불러 통일의 서곡을 올린 문무왕 범민과 관련된 일화,<sup>31)</sup> 황룡사9층탑의 영험으로 운수가 형통하고 삼한을 통일한 사례 및 금관성의 파사석탑의 예를 들어 왜군(倭軍)을 막아온 내용을 전하는 사례<sup>32)</sup>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삼국유사』는 이러한 국난 극복 노력들의 보고(寶庫)인 것이다.

29) 『三國遺事』 卷1, <紀異> 金庾信; 太宗春秋公조.

30) 『三國遺事』 卷1, <紀異> 長春郎 罷郎 조.

31) 『三國遺事』 卷2, <紀異> 文武王法敏; 萬波息笛 조.

32) 『三國遺事』 卷4, <塔像>, 金官城砂波石塔 조.

## 2. 신화적 존재의 재발견을 통한 정치공동체 지배질서의 정당성 확보

어느 정치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일대 위기에 처하는 시기에는 신화적 존재나 영웅적 존재에 대한 담론들이 출현 혹은 유행하기 마련이다. 이는 이러한 카리스마적 존재들의 역할을 통해 위기에 처한 해당 정치공동체의 지배질서의 정당성을 확인받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다. 베버(M. Weber)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카리스마적 지배질서의 정당성’<sup>33)</sup>이라고 하겠다. 안으로는 왕정회복, 밖으로는 주권확보를 구축해야 했던 고려 정치질서의 국가적 과제 앞에서 고려 정치질서의 신성성 강조를 통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연 역시 『삼국유사』 저술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군신화>를 서두로 시작하는 「기이(紀異)」편 <서(序)>에 기술된 일연의 진술이 그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대저 옛날 성인(聖人: 공자를 지칭함-필자 주)께서는 바야흐로 예악(禮樂)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仁義)로 교화를 베푸는 때였으니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바이지만 제왕(帝王)이 처음 일어나려 할 적에는 부명(符命)을 주고 도록(圖籙)을 받도록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점이 있는 연후(연후야) 대변(大變)을 타고 대기(大器)를 잡아 대업(大業)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다.<sup>34)</sup>

상기 예문에서 보듯이 일연은 공자가 추구한 정치는 평상시의 인의/예악으로 행하는 정치였기에 괴력난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와 달리 제왕이 처음 출현하는 정치공동체 형성기에는 신화적 존재나 영웅들이 출현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sup>35)</sup> 이어서 일연은 하도(河圖)/낙서(洛

33) 주지하다시피 베버(M. Weber)는 정치적 지배질서의 정당성에 대해 세 가지, 곧 전통적 정당성, 카리스마적 정당성, 합법적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34) 『三國遺事』 卷, <紀異>, 序. “大抵 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書) 출현을 드는 것으로 중국문명의 시작의 상징인 복희(伏羲)와 우(禹) 임금의 정치질서 출현과정도 신이(神異)함이었음을 논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황오제(三皇五帝)를 비롯한 중국의 성왕/성인, 심지어 한(漢) 고조(高祖)의 탄생설화 등을 들면서 이러한 예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36)</sup> 이는 새로운 문명탄생기에 출현하는 신성한 존재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보편화의 시도였던 것이다. 물론 이는 그것의 고려적 과정이 정당한 것이라는 논리를 유도하는 입론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때 삼국(三國)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찌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기이」편으로 이 책의 여러 편들을 이끌게 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sup>37)</sup>

즉 중국의 시조들이 그러하듯이 고려의 전 왕조들과 시조들 역시 신성한 존재로서 탄생한 것임을 제시할 터인데, 이는 전혀 괴이(怪異)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려 정치공동체 역사의 독자적 신성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라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 3. ‘민족형성’과 ‘국가형성’의 전승

흔히 『삼국유사』의 최고의 가치로 회자되어온 점이라면 <단군신화>를 비롯한 각종 건국신화를, 적어도 현존하는 서적으로서는, 최초로 수

35) 사실 지금까지 이 대목은 일연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유교에 대해 비판하면서 『삼국유사』를 서술한 예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일연은 평상시와 창업기를 구분하여 인식하면서 공자조차도 창업기의 신성한 정치지도자 출현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리라는 식의 해석이 더 정당하다고 본다. 이는 원문의 ‘方’자와 ‘將興’이라는 글자 및 문맥에 주목하여 해석할 때 그렇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기서는 더 상론할 여유가 없으므로 추후 별고(別稿)를 기약하기로 한다.

36) 『三國遺事』 卷, <紀異>, 序. “故 河出圖洛出書 而聖人作 …… 生沛公 …… 豈可殫記”

37) 『三國遺事』 卷, <紀異>, 序. “然則 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紀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록하였다는 것이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최초의 한민족의 '민족형성(Nation Building)'과 '국가형성(State Building)' 과정의 재구성과 전승 작업의 현존 고전이라는 말이다. 즉 그것이 신화적 형태건, 설화적 형태건, 상상의 형태건, 역사적 형태건 간에 그 형식과는 상관없이, 고조선 성립 이후 형성되어 전승되어 오던 <단군신화>를 비롯한 제 <건국신화>들을 고려시대의 일연이 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古朝鮮>조로부터 시작되는 각 왕조의 건국신화, 홍망사는 『삼국유사』 2권 「기이」 하에 이르기까지 삼국시대사를 단군으로부터 훑어 내림으로써 『삼국유사』 속에 우리 고대사 전체가 걸어들어 오게 하고, 고조선에서 기자조선을 거쳐 마한으로, 마한에서 다시 72국으로 흘러내리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의 본류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게 탄생되었으며, 동일한 조상의 다 같은 후손이라는 민족의식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삼국유사』에서는 민족형성 과정에 필수적인 한민족의 역사적 공간도 확정해주고 있다. 삼국의 강역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한반도와 만주일원까지가 한민족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다.<sup>38)</sup>

그리고 이러한 민족형성 과정에 대한 전승은 동시에, 그 내용들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건국설화 및 왕력만이 아니라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만조선, 마한, 이부, 칠십이국, 낙랑국, 북대방, 남대방, 말갈과 발해, 이서국, 5가야, 북부여, 동부여, 변한과 진한 등의 제 국가의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록된 데서도 잘 입증되듯이, 국가형성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결국 일연은 이러한 민족형성 과정과 국가형성 과정을 『삼국유사』 저술을 통해 재전승함으로써 고려의 국내외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즉 민족과 제 국가형성 과정의 역사 서술은 안으로는 국난에 처한 고려인들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부식함으로써 국가적 자

38) 윤천근(2007) 118-119 및 129; 예철해(2008) 228 참조.

부심과 화합의식을 유도하고, 밖으로는 간섭이 심화되는 새 왕조 원(元)에 대해 고려는 역대 중국 왕조와 다른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별개 왕조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정치공동체임을 주장하였다고 하겠다.

#### 4. 정치이념적 전통의 확립과 계승

일연이 『삼국유사』의 「왕력」편에 이은 「기이」편 본문 첫 머리에 <단군신화>를 수록한 중요한 의도 중의 하나는 당대 고려라는 정치공동체로 하여금 태초의 건국이념의 시원(始原)을 환기시킴으로써 국가의 본질적 이념(理念), 곧 국가의 존재이유, 역할, 이상 등에 대한 관념을 재정비하여 실천해달라는 주문이었다고 하겠다.<sup>39)</sup> 물론 고려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그를 고조선 성립 이후 전승되어 오던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기록하였을 때는 그가 비정치적인 의도로 단순히 전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묵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새로이 담기도 했을 것이다. 전승된 형태이든 자신의 주장이 가미된 재가공의 형태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연이 이상시하는 정치공동체관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서는 <단군신화> 중에서도 <고기(古記)> 인용부분만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정치이념의 성격 제시만을 행하기로 한다.<sup>40)</sup>

<단군신화>는 환인(桓因)하늘님이 그 아들 환웅(桓雄)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홍익인간할 만한 삼위태백의 땅을 점지해주자에

39) 최초의 한족(韓族)의 탄생신화이자 국가 형성신화인 <단군신화>는 고려시대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본과 더불어 이승휴(李承休, 1224-1301)의 『제왕운기(帝王韻紀)』(1287)에 수록되어 전승되어 왔다. 다른 한편 <단군신화>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이 이루어졌다(지금까지의 연구와 그 경향에 대해서는 강돈구(1994), 이은봉(1994), 이필영(1996), 이재원(2005)의 연구 참조). 정치학계의 연구로는 김석근(1996), 최희식(1999)이 있다.

40) 이에 대해 상론하는 것 역시 책 전체의 정치학적 성격을 고찰하는 이 글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군신화>만을 자세히 고찰할 여유가 없는 관계로 추후의 별고를 기약한다.

환웅이 천왕(天王)으로서 내려와 신시(神市)를 설립하고 재세이화(在世理化)를 실천하고자 하였는데, 곰이 나타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여 실험 끝에 사람이 되게 해주자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졸라 환웅이 잠시 인간으로 변하여 낳은 자식이 아사달에 최초의 국가를 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이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형성 주체인 주권자의 자질, 기본적인 국가의 통치구조, 주요 임무와 주관사무, 정치목표 등이 설정되어 있다. 즉 천손(天孫) 의식, 세속성/신성성 조화, 천명(天命) 의식. 인본주의, 사머니즘, 토테미즘 등의 사상적 경향뿐만 아니라 국가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일상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을 비롯한 인간생활 그 자체(人間三百六十餘事)라는 정치범주, 그리고 홍익인간, 재세이화라는 궁극적인 정치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sup>41)</sup> 일연이 <단군신화>의 전승자로 나섰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단군신화>의 정치이념적 전통을 당대 국가 고려에 국가에 재확립하고 계승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 V. 결론

지금까지 시론적이거나 정치학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삼국유사』에 대한 하나의 독해를 시도해보았다. 2장에서는 『삼국유사』에 대

41) 『三國遺事』紀異, 古朝鮮. “古記云 昔有桓因(謂帝釋也)庶子桓雄 數意天下 貪求人世 父知子意 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 乃授天符印三箇 遣往理之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 (即太伯今妙香山)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時有一熊一虎同穴而居 常祈于神雄 願化爲人 時神遺靈艾一炷 · 蒜二十枚曰爾輩食之 不見日光百日 便得人形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 熊得女身 虎不能忌而不得人身 熊女者無與爲婚 故每於壇樹下 呪願有孕 雄乃假化而婚之 孕生子號曰壇君王儉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 (唐堯卽位元年戊辰 則五十年丁巳 非庚寅也 疑其未實) 都平壤城 (今西京)始稱朝鮮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 (一作方)忽山 又今彌達 御國一千五百年 周虎王卽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행해진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그것은 안정복과 최남선으로부터 시작된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를 살펴보고, 정치학적 평가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3장에서는 『삼국유사』의 저술 배경이 되는 저자 일연(一然)이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국존(國尊)의 지위에 오르는 과정과 그 시대의 정치사적 배경에 대해 특히 국내적으로는 무신정권(武臣政權)의 종식과 왕정(王政)의 회복, 밖으로는 몽골과의 전쟁의 종결과 강화(講和), 그리고 원(元)의 국정 간섭의 극복이라는 정치적 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상기한 정치적 과제와 관련, 『삼국유사』는 단군조선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삼국 수립 및 통일 과정에 대한 기술을 통해 고려 국가와 민족의 정치공동체의 시원과 국가형성 및 민족형성 과정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즉 그 저술의 궁극적 목적은 한민족의 국가/민족 형성의 시원과 그것의 삼국시대를 거치는 역사적 전통(傳統) 과정을 재확인함으로써 고려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 문명공동체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불교적 언술과 염원의 방식을 취하며 술한 신화나 설화적 소재를 동원하더라도, 그 전달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충효 관념에 입각한 국가위기 극복 방식과 효성의 실천 및 신성하고 영웅적 존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접수일 : 09.08.17 / 심사일 : 09.09.07 / 심사완료일 : 09.09.15

<참고 문헌>

『三國遺事』(新刊本: 崔南善 校勘, 啓明俱樂部本, 1946), 서문사, 1971.(현재까지 고려시대의 刻本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본 가운데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1512년(조선 중종 7) 경주부사 李繼福에 의하여 重刊된 正德本이 최고본이다.)

『譯註三國遺事』1-5, 정신문화연구원, 이회문화사, 2002

『국역 삼국유사』(북한본)

『삼국유사』, 이가원 역, 1998, 대학사.

<普覺國尊碑銘古搨本> (奎章閣本·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朝鮮金石總覽』

『高麗圖經』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李相國集』

『海東高僧傳』

『東文選』

『帝王韻紀』

『崔文昌侯全集』

강돈구, 1994, 「단군신화의 민족학 및 철학/사상분야의 연구」『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출판부.

고익진, 1982, 「삼국유사찬술고」, 『한국사연구』38.

고익진, 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동국대학교출판부.

권희경, 2000, 「삼국유사를 통해 본 고려적 시각」, 『서지학연구』20.

김두진, 2000, 「삼국유사의 체제와 내용」, 『한국학 논총』23.

김두진, 2002, 「일연의 생애와 사상」, 『전북사학』19.

김병희, 1998, 「신화와 교육: 단군신화에서의 교육의 의미」, 『교육학연구』36(4).

김상현, 1978,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20.

김상현, 1985, 「고려후기의 역사인식」, 『한국사학사의 연구』, 을유문화사.

- 김상현, 1993, 「삼국유사의 역사방법론적 고찰」, 『동양학』23.
- 김석근, 1996, 「단군신화와 정치적 사유: 한국정치사상의 시원을 찾아서」, 『사회과학연구』9집; 이재석 외, 2002, 『한국정치사상사』, 집문당 재수록.
- 김석근, 1997, 「『삼국유사』와 ‘정치학’의 만남에 관한 작은 보고서: 한국정치사상사 연구의 새 지평을 전망하며」, 『정치외교사논총』17집(한국정치사상의 성찰 “하곡 홍순호 교수 화갑기념특집호)
- 김열규/ 신동욱 편, 1982,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 김영수 편, 1992,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문화』, 여강출판사.
- 김영태, 1974,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경희사학』5.
- 김영태, 1974, 「삼국유사의 체제와 성격」, 『동국대학논문집』11.
- 김영태, 1979, 『삼국유사소전의 신라불교사상연구』, 신흥출판사.
- 김영태, 1990, 『삼국시대불교신앙연구』, 불광출판사.
- 김용옥, 『三國遺事引得』, 통나무.
- 김주한, 1983,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 『삼국유사연구』상, 영대출판부.
- 김철준, 1976, 「고려시대 역사의식의 변천」, 『한국문화사론』, 지식산업사.
- 김태식, 1987,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고려시대인식」, 『울산사학』1.
- 김태영, 1974, 「일연의 역사의식」, 『경희사학』5.
- 김태영, 1976,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한국의 역사인식(상)』, 창작과 비평사.
- 남동신, 2007,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불교학연구』16, 불교학연구회.
- 노태돈, 1982,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38, 한국사연구회.
-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1982, 『삼국유사의 연구』, 중앙출판주식회사.
- 목영해, 2004, 「단군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교육원형」, 『교육사상연구』14,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문세영, 1988, 『조선어사전』, 대체각.
- 민영규, 1983, 「일연과 陳尊宿」, 『학림』5.
-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3,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출판부.
- 박용운, 1985, 『고려시대사』상/하, 일지사.
- 박진태 외, 2002,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 백산자료원, 1986, 『삼국유사연구론선집』1, 백산자료원.

- 손진태, 1949,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학풍』2권 1/2호(『손진태선생전집』6, 태학사)
- 신라문화선양회 편, 1991, 『삼국유사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 신종원, 2004, 『삼국유사 새로 읽기(1): 기이편』, 일지사.
- 신채호, 1987, 『개정판단재신채호전집 상』,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편.
- 안경식, 2005, 「한국 고대 교육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삼국시대 이전의 연구물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17, 한국교육사상연구회.
- 안계현, 1975, 「一然」, 『韓國의 思想家 十二人』, 玄岩社.
- 안대회, 1997, 「조선시대 문장관과 문장선집」, 김도련 편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태학사.
- 예철해, 2007,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 『종교교육학연구』제24권.
- 윤천근, 2008, 「일연의 불교문화 사관」,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제47호.
-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 『일연과 삼국유사5,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1』, 중앙승가대학 불교사학연구소 편.
- 이기백, 1973,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36.
- 이기백, 1981,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 이기백, 1983, 「신라불교에서의 효 개념」, 『동아연구』2.
- 이남영, 1973, 「삼국유사와 승 일연과의 관계 고찰」, 『철학연구』2, 서울대.
- 이도흙, 1995, 「삼국유사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한국학논집』26.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만열, 1974, 「17-8세기 사서와 고대사 인식」, 『한국사연구』10.
- 이만열, 1981, 「민족주의사학의 한국사 인식」,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 이범교 역해, 2005,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 민족사.
- 이우성, 1962, 「고려중기민족서사시」, 『성균관대학교논문집』7.
- 이우성/강만길 편, 1976, 『한국의 역사인식』상/하, 창작과 비평.
- 이은봉, 1994, 「단군신화 연구의 경향과 과제: 종교적 측면에서」, 『단군: 그 이해와 자료』.

- 이익주, 2003, 「고려 후기 단군신화 기록의 시대적 배경」, 『문명연지』, 4권 2호.
- 이재운, 1984,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 『전북사학』8, 전북대 사학회.
- 이재원, 2005, 「단군신화의 민속학적 연구사 고찰」, 『동아시아의 지역과 인간』, 지식산업사.
- 이재호, 1983,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주의의식」,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
- 이재호, 1969,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국가의식: 과거의 사대주의사관의 비판에 대하여」, 『부산대논문집』10.
- 이필영, 1996, 「단군신화 인식의 계통: 學史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9, 신서원.
- 인권환, 1983, 『고려시대 불교사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장덕순 외, 1971, 『구비문학개설: 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일조각.
- 정구복, 1981, 「고려후기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 정구복, 1987,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협력실(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보고논총 87-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구복, 1989, 『한국인의 역사의식: 고대편』, 고려원.
- 정대구, 2000, 「삼국유사와 중/일 불교전기문학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병삼, 2006, 「일연선사비의 복원과 고려 승려 비문의 문도 구성」, 『한국사연구』133.
- 정병삼, 2007, 「신라불교사상사와 『삼국유사』 의해편」, 『불교학연구』16.
- 정출현, 1989, 「삼국유사 소재설화의 세계관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28(1), 안암어문학회.
- 조동일, 1990,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 중앙승가대학 편, 1992, 『일연과 삼국유사』(1-17권), 민족문화출판사.
- 중앙승가대학불교사학연구소 편, 『일연과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연구』2.
- 채상식, 1979, 「보각국존 일연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26.
- 채상식, 1984, 「일연의 사상」, 『한국의 사상』(윤사순, 고익진 편), 열음사.

- 채상식, 1988, 「일연(1206-1289)의 사상적 경향」, 『한국문화연구』창간호.
- 채상식, 2006, 「一然 연구현황과 과제」, 『동양한문학연구』23집.
- 최희식, 1999, 「단군신화와 용비어천가에서 나타난 통치자의 모습」, 『역사와 사회』3권 24호.
- 하정룡/이근직, 1997. 『삼국유사교감연구』, 신서원.
- 하정현, 1991, 「일연의 신화인식에 관한 연구: 『삼국유사』 기이편 소재 시조 신화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10.
- 하정현, 2003, 「삼국유사 텍스트에 반영된 ‘신이’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하현강, 1975, 「고려시대의 역사계승의식」, 『이화사학연구』8, 이화사학연구소.
- 하현강, 1976,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관」, 『독서생활』6월호, 삼성출판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87,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조은문화사.
- 한영우, 1994, 「고려시대의 역사의식과 역사서술」, 조동걸 외 엮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상)』. 창작과 비평사.
- 한종만, 1997, 「일연의 중편조동오위 연구」, 『한국불교학』 23.
- 허홍식, 1979,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일조각.
- 홍운식, 1979, 「삼국유사와 불교의례」, 『불교학보』16.
- 홍운식, 1985,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 출판국.
- 홍운식, 1987, 「삼국유사에 있어 구삼국사의 제문제」, 『한국사상사학』1.
- 황원구, 1981, 「실학파의 역사인식」.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국사편찬위.
- 황폐강, 1979, 『신라불교설화연구』, 일지사.
- 황폐강, 1973, 「신라 불교설화 연구: 신라호국불교사상의 설화적 전개」, 『동양학』3, 단대 동양학연구소.
- 황폐강, 1987, 「삼국유사와 향가 연구」,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정신문화연구원.

## Abstract

*A Political Reading of Samguk-Yusa / Ahn, Woi-soon*

This paper attempts a political reading of *Samguk-Yusa*. To that end, Chapter 2 reviews previous works on *Samguk-Yusa* in various fields. Especially, it deals with the negative and positive views on the book begun from Ahn Jeongbok and Choi Namseon to argue the necessity of a political reading. Chapter 3 explores the political milieu of the time in which the author Il Yeon had come to be the supreme intellectual of the time and the national hero. The political milieu especially consists of these political tasks: domestically, the end of military regime and the restoration of royal rule and internationally, the end of the war with Mongol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and the overcoming of Yuan's political intervention. Chapter 4 overviews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meaning in *Samguk-Yusa*. *Samguk-Yusa* tried at least to confirm the divinity of a Korean nation by summoning up political imaginations. Through the reformulation of the task of the nation and ethnic identity building, it emphasized the identity of the political collective of Goryeo. The illumination of the filial and royal conducts during the Samguk period meant to reestablish the national and family royalty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Even the descriptions of numerous incidents of strange behaviors and Buddhistic comments of monks are not exceptions. They are also related to the Buddhism that taught the ultimate royalty to a nation.

Key words: a political reading, *Samguk-Yusa*, Il Yeon, Goryeo, the nation-identity.